

## “27일 0시~4시 전일빌딩에 헬기 기총소사 했다”

<옛 광주일보 사옥>

5·18 진압 작전 투입 3공수 11대대 지휘관 증언 나와  
 “부하 15명 3개조 지원...작전 마치고 부대원들이 보고”  
 “광주교도소 암매장...지금이라도 현장 가면 알 수 있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당시 투입 부대 지휘관의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목격자들의 증언은 있었지만 전일빌딩 점령작전에 투입된 당사자 증언은 처음이다. <관련 기사 3면>

29일 광주시, 5·18기념재단,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3공수여단 11대대의 지휘관(당시 소령)이었던 A씨가 80년 5월 27일 전일빌딩 헬기사격 등의 내용을 제보했다. 이 부대는 진압작전(총정 작전)을 위해 광주에 주둔했다.

A씨는 “5월 20일 용산에서 출발, 21일 새벽 광주역에 도착해 금남로 등지에 투입됐다”며 “전남도청 탈환 작전의 하나였던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은 27일 새벽 0시 시차돼 3~4시경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일빌딩 진압작전에 부하 15명을 지원했으며 이들은 후문, 정문, B동 등에 3개조로 투입됐다”며 “헬기사격 사실은 전일빌딩에서 작전을 마치고 복귀한 부하들의 보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일빌딩 지하공간을 희생자의 임시 보관소 썼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주장도 처음으로 나왔다. 그는 “전일빌딩에 접두했던 부대원들에게 ‘전일빌딩 B동 지하에서 167구의 시신을 봤다’는 보고를 들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털어났다. 당시 공개된 시신 안치장소였던 상무관과 달리 전일빌딩 지하공간은 광주시민조차 존재를 모르는 장소였다.

A씨는 또 “22일부터 우리 대대는 광주교도소 정문에서 경계근무를 했는데 교도소 정문 50~100m 거리 나무숲 인근에 20대 남성 시신 3구를 1m 깊이에 가매장했다”면서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군의 총기타격과 관련, 보안사의 역공작 의혹도 제기했다. 21일 군의 집단발포 이전 이미 관할 경찰서와 군이 총기와 실탄을 탈취하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는 “총기 실탄 관련 매뉴얼에는 총기와 실탄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당시 경찰서 당직 근무자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증언은 그동안 군 작전일지 등과 상단부분 일치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특전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지역소사태 진압일지’, ‘육군본부 상황일지’ 등에 따르면 계엄군은 1980년 5월 27일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전남도청 일대 진압작전인 상무총정작전을 펼쳤다. 3공수여단 11대대는 전일빌딩, 11공수여단 61대대는 전일빌딩·YWCA·관광호텔을 진압했다. 7공수여단은 광주공원을 담당했다.

“11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진압작전 전투상보”를 살펴보면 지휘관을 포함한 11공수여단 61대대 4중대 특공대원 37명은 20일 밤 11시 15분께 광주비행장에서 UH-1H 5대를 타고 동구 주남마을로 이동, 21일 새벽 1시 30분 중간 집결지점인 조선대학교 뒷산에 도착했다. 이들이 탑승한 헬기(UH-1H)는 국과수 감정결과 전일빌딩에 기총소사했던 헬기와 동일 기종이다. 61대대는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했던 부대 중 하나다. 특공대원들은 새벽 3시 30분께 도로로 이동, 4시경 진압시작, 4시 10분께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을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육군본부 상황일지’에는 4시 30분 침투해 4시 38분 점령을 완료했다고 적혀있다. 두 기록 사이에는 시간대 차이가 있지만 진압시간은 10분 내외로 일치한다.

전일빌딩에 있었던 시민군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전일빌딩에는 시민군 1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명은 생포됐고 나머지 11명은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다. 11공수여단 전투상보 ‘진과 및 피해상황’에는 전일빌딩, YWCA 등에서 3명을 사살하고 29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전과로 기록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로마라이프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폐막  
 광주일보가 주최한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결승전이 29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렸다. 32개팀 총 1000여명이 참가, 무등·광일리그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광일리그에는 썬솔스토키가, 무등리그에서는 자연환경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무등리그 결승전이 끝난 후 김여승 광주일보 사장과 우승팀 자연환경과 준우승팀인 로즈스나이퍼스 선수단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KIA 투타 압도...‘V11’ 1승 남았다



양현종·팻트·임기영 ‘선발의 힘’  
 두산에 3연승...시리즈 3승 1패  
 오늘 5차전 헥터·니퍼트 리턴매치

‘호랑이 군단’이 ‘V11’에 1승만 남겨두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2017 KBO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5-1로 이기면서 시리즈 전적을 3승 1패로 만들었다. <관련기사 7·20면>

지난 25일 안방에서 열린 1차전을 3-5로 내줬던 KIA는 이후 3연승을 달리면서 정규 시즌에 이어 포스트 시즌 제패까지 1승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KIA가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과의 한국시리즈 5차전까지 승리로 장식하면, 8년을 기다린 V11이 완성된다.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도 이어지게 된다.

토종 에이스 양현종에서 시작된 ‘나비효과’다.

KIA는 1차전에서 ‘20승·200이닝’에 빛나는 헥터의 6이닝 5실점(4자책점)의 부진 속에 승리를 내주면서 플레이오프부터 이어진 두산의 기세에 밀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차전 선발로 나선 양현종이 12

구의 투구 속에 한국시리즈 첫 1-0 완봉승 경기를 만든 뒤, 양 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거침없던 두산 방망이가 한풀 꺾였고 반대로 KIA 마운드에는 힘이 실렸다.

3차전 선발로 등판해 7이닝 3실점으로 6-3 경기의 승리투수가 된 팻트는 “양현종의 완봉승이 자국이 됐다. 두산 타자들 도 사람이구나 싶었다. 내 공만 잘 던지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승리 비결을 밝혔다.

그리고 4차전을 통해 처음 한국시리즈는 물론 포스트 시즌 첫 마운드에 오른 임기영까지 5.1이닝 6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되는 등 호투 릴레이가 이어졌다.

KIA 불펜진도 8.2이닝 1실점으로 두산 불펜을 압도하면서 승리에 힘을 보탤다. ‘V11’과 함께 또 다른 의미 있는 기록들

도 쓰이고 있다.

KIA의 최고참 임창용의 등판은 한국시리즈의 역사다. 28일 3차전 등판으로 41세 4개월 24일이라는 한국시리즈 최고령 출장 기록을 세운 임창용은 29일에도 마운드에 오르며 자신의 최고령 기록을 경신했다.

KIA 팬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한국시리즈 매진 행진도 4경기까지 이어졌다.

29일 잠실구장의 2만5000장의 입장권이 모두 팔려나가면서 한국시리즈 143번째 매진 기록이 작성됐다. 이번 시리즈 4경기 연속 매진이자 앞선 시리즈까지 더하면 한국시리즈 13경기 연속 매진이다.

한편 30일에는 1차전에서 맞붙었던 KIA 헥터와 두산 니퍼트가 각각 ‘팀 우승’과 ‘6차전’을 목표로 전진승부를 벌인다.

/잠실=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 평화의 물결 속으로

## DIVE INTO PEACE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The 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선수권 대회 2019. 7. 12~7. 28 (17일간)  
 마스터즈 선수권 대회 2019. 7. 29~8. 11 (14일간)





## 광주 2019



